

특별기고

ISO 통합경영시스템의 사회적 가치

김채진

한국공기안전원장



최근에 기업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경쟁은 물론이고 환경보호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구축·확보가 기업의 생존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표준인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단순 인증서의 여부만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묻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건설업 업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ISO 경영시스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입직을 희망하는 예비 인재에게는 어디서부터 학습을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현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기안전원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훈련을 개설했다. 이번 훈련은 ISO 9001, 14001, 45001의 통합시스템 구축부터 실습까지 전 과정을 담아 교육생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품질경영의 사회적 책무를 기반으로 한 ISO 9001은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영시스템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 속에서 품질경영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부실한 품질관리로 인한 리콜, 안전사고, 환경오염 사례는 기업 이미지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ISO 9001은 이를 예방하는 '사전 안전장치'인 셈이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다. ISO 14001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경영시스템으로서 기업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를 갖추도록 돕는다. 최근 국내외 대기업들은 협력사에도 ISO 14001 인증을 요구하는 추세다. 이는 공급망 전체가 환경책임을 공유하겠다는 글로벌 선언이며 중소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경영은 법적 준수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안전보건의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ISO 45001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며,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안전보건 수준이 미흡하면 기업은 법적·재정적 리스크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다. 반대로 체계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은 '안전한 일터'라는 사회적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는 통합경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핵심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각 기업의 산업 특성과 경영 방향에 최적화된 통합경영시스템을 설계·구축해야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다.

ISO 9001, 14001, 45001은 개별 운영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통합경영시스템(QHSE) 구축이 각광받고 있다. 품질·환경·안전보건을 함께 관리하면 중복 업무를 줄이고, 리스크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는 기업 내부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공기안전원에서 운영예정인 ISO 인증 심사원(보) 취득 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실제 심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국제심사원 자격 취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의 경영시스템 설계와 구축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내부 심사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해당 과정은 광주 내 실업자, 재직자, 현직자 등 경영시스템 통합에 관심 있는 인재들의 문의가 쇄도할 만큼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또한 기존에 해당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은 '교육과정의 실무 실습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과정의 실효성과 우수한 훈련 품질을 입증했다.

앞으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 제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해 수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역량 증빙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 내부의 품질·환경·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ISO 통합 내부심사원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며 직장인도 수강할 수 있도록 주말반으로 개설되었다. 교육 내용은 ISO 9001, 14001, 45001 요구사항 해설부터 심사계획 수립 및 체크리스트 작성 실습, 인증제도 이해와 내부심사 절차 실무, 국제심사원 자격 취득 요건 이해까지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남 미식여행, 정성과 신뢰로 다시 시작한다

기고

송기현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장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해변, 황금빛으로 물드는 들녘, 그리고 여행자의 마음을 붙잡는 한 그릇의 따뜻한 음식, 전남도는 '맛'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곳이다. 많은 이들에게 전남은 '먹기 위해 떠나는 여행지', 그리고 '한 번 맛보면 반드시 다시 오게 되는 곳'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위생 논란과 서비스 불만은 그 따뜻한 기억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전남의 음식문화는 단순한 끼니를 넘어서 관광 그 자체다. 목포의 홍어삼합과 낙지요리, 여수의 계장백반과 장어구이, 순천의 국밥정식, 담양의 대동밥과 떡갈비, 보성 꼬막요리, 장흥 한우·키조개·표고버섯 삼합, 강진의 한정식, 해남 닭코스 요리, 영광 굴비정식까지, 전남은 전국 22개 시군 모두가 저마다의 '음식 브랜드'를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한층 철학은 '한상 가득, 정성 가득'이다. 손님을 향한 극진한 대접, 지역의 제철 재료를 아끼지 않는 풍요로움, 대를 이어 내려온 손맛까지, 전남 음식은 그 자체로 문화이며 이야기이고, 정(情)이다.

하지만 최근 전남관광재단의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방문객 중 24%가 '가격이 예상보다 비쌌다.', 15%가 '서비스 기대에 못 미쳤다'고 응답했다. 특히 음식점에서의 경험은 여행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일부 업소의 문제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도지회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역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한다. 전남의 '맛'은 단순한 상업적 도구가 아닌, 전통과 정성, 그리고 지역민의 자부심이 담긴 자산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세우는 노력이다.

음식은 가장 직접적인 관광의 얼굴이다. 관광산업의 본질은 신뢰다. 단 한 끼의 불쾌한 식사 경험도 온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퍼질 수 있고, '맛의 고장'이라는 전념의 이미지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반면, 합리적인 가격과 따뜻한 한 마디가 어우러진 식사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남는다. 결국, 여행객은 아름다운 풍경보다 맛있는 한 끼에서 더 깊은 감동을 얻는다.

이제 전남도는 미식 중심 관광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한 '먹거리 제공자'가 아닌, 지역 정체성과 관광 브랜드의 핵심축으로서 음식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도지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변화에 앞장설 것이다.

첫째, 일정 교육과 평가를 거친 업소에 '전남의 맛과 친절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맛과 서비스가 검증된 음식점 리스트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음식점을 단순한 식사 장소가 아닌 '전남여행 코스'의 일부로 설계하고, 음식과 지역 체험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광과 외식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셋째, MZ세대는 '먹는 것'보다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반응한다. SNS·유튜브·쇼츠 영상 등 디지털 채널을 적극 활용해 '합리적 가격·친절 서비스·전남의 맛'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 음식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겠다.

넷째,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 교육 확대를 통해 업소의 기본 역량을 높이고,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남 외식환경을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행정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재방문율이 높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가 향상될 경우 재방문 의도는 28%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한다. 이는 곧 지역 소상공인 매출 안정화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전남이 '신뢰할 수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한다면,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다시 찾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이 될 것이다.

여행은 때로 풍경보다 맛이 먼저 기억되는 법이다. 한 그릇의 진심 어린 음식은 수려한 자연보다 강렬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음식이 정직한 가격, 정성 어린 서비스,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한다면, 여행자는 다시 전남을 찾게 될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는 외식업계 스스로가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으로, 지역 음식점계와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미식관광 1번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혁신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작은 한 끼에 담긴 정성이 한 사람의 여행 전체를 바꾸고, 그 한 사람이 다시 전남을 찾는 발걸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남도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정직한 밥상을 차려낼 준비가 되어 있다.

자사들을 살상했다.

또 여전히 독도를 다시 침탈할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사죄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에 여념이 없다.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보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만 강조한 광복절 축사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역사정의를 회복하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할 시기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의 애국과 희생정신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는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우리의 이정표이다. 나라를 잃고 일제에 억압받던 시기 독립 의지를 불태우며 자신을 산화한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

광주 AI,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달렸다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AI 2단계 사업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총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 사업' 본격화 한다.

이 사업은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로 진행됐던 국가AI데이터센터, 대형 드라이브 시뮬레이터 등 1단계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이어 2단계는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에 AI를 채우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역 전략산업 AI 전환, 모두의 AI 개발 및 도시·생활 AI 전환, AX 지원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를 추진한다. 시민생활 속 실증과 기술개발을 통해 교통·안전, 의료·건강, 공공·행정, 생활·환경, 문화·감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그동안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런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가 중요한 과제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정부와 기업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비수도권에 AI데이터센터를 짓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AI 개발·활용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실상 광주 AI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치 여부가 곧 광주 AI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한포인 것이다. 1·2차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지분 구조 등 일부 핵심 요건을 완화해 3차 공모가가 제출될 전 전망이다.

광주는 이미 5만㎡ 부지와 120MW 전력을 확보했으며, 핵심 기업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 입주도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등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AI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집중돼 있어 'AI 1단계 사업'의 성과물 토대로 추가 확장 가능성도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으로 광주가 진정한 AI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석유화학산업 위기’ 정부가 적극 나서야

전남지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해온 오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국내 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은 지난해 이어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이 큰 원인이다.

특히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체인 여수국가산단은 국내 주요 화학업체의 주력 공장이 들어서 지역경제를 이끌었지만 올 들어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가 하면 부도 위기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핵심 설비가 흔들린 것이다. 최근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가동을 멈추거나 가동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지난해 에틸렌 가격도 16% 넘게 떨어졌다.

업계는 석유화학 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중국이 자체 생산시설을 늘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석유화학 제품 대중국 수출이 17% 줄었고, 에틸렌 수출 감소 폭도 40%를 넘었다. 최근에는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지만 한화·DL그룹의 자금 투입으로 급한 불은 꺾지만 수익 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

이처럼 석유화학 산업 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5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첫 지정했다. 2년간 석유화학기업에 연구개발,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향후 전망도 낙관적 않아 힘겨운 구조조정 과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20일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석유화학 설비 통합 관련 금융·세제 인센티브,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수치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석유 화학사들도 미래 먹거리를 찾아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석유 화학에만 집중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량생산보다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사업 효율화가 적극 요구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물론 정부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마련과 예산 지원, 나아가 석유화학 업계도 설비 조정 등 자발적 사업 재편에 참여해 사업 효율화와 산업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